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중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총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신성중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선근

1953·교회설립 40주년·1993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및 그림 그리기대회

6월 6일(주일), 교회당에서
40주년 기념행사 계속적으로 이어져

교회는 교회설립 40주년 행사일정을 확정후
속속 구체적인 준비와 진행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봉사관 완공, 자폐아를 위한 학교
설립 기초안 통과, 교육대회개회 기초안 등
과 5월 28일(금) 충현올림픽을 앞두고 조직
위원회를 구성, 준비가 착착 진행중이다. 충
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를 위해 표어 및
퍼켓걸을 공모 및 모집하고 있으며, 기획부
서에서는 그날의 일정 및 경기 종목을 확정
하였다. 아울러 이에 따른 준비작업 등이 차
근차근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제일 먼저 40주년 기념행사준비에
들어간 미주선교찬양대는 지난 3월 8,9일 수
련회를 마치고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카
네기홀에서의 미주 기독교방송 주최 미주성
가대합창제에 참가하고 시카고등 6개 지역을
순방하며 연주할 계획을 짜고 연습에 한창이
다.

한편 교회는 6월 6일(주일), 교육관 및 교
회당 뜰에서 성경암송대회 및 그림그리기 대
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조직 및 기본대회요강
을 발표했다. 이 성경암송대회는 우리 교회가
교회설립 기념행사 때마다 전통적으로 행
해온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사랑
과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며 온
교회가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었다. 성경암송대회 및 그림그리기 대회

의 조직 및 기본요강은 다음과 같다.

1. 일시 : 1993.6.6. 오전 9시 - 오후 5시
2. 장소 : 교육관 및 교회 뜰
3. 참가대상 : 성경암송대회 - 전교인
· 그림그리기대회 - 유치부 ~고등부까지
4. 주최 : 교회설립 40주년행사 준비위원회
5. 조직
· 고문 : 김창인 원로목사
· 대회장 : 신성중 목사
· 준비위원장 : 송기홍 장로(교육위원장)
· 지도 : 홍창민 목사(교육위원회 지도)
· 총지휘 : 손경수 장로(청년2부 부장)
· 총무부:부장/김종구 장로 차장/황현철 집사
· 진행부:부장/최무길 장로 차장/양종섭 집사
· 심사부:부장/김재명 장로 차장/박동엽 집사
· 각 교회학교 부장, 부감(남,여), 처장(3개
처) 전원

6.대회방법

- (1)성경암송대회 암송범위
가. 영 아 부 : 사도신경(찬송가 앞면 참조)
나. 유 치 부 : 십계명(찬송가 앞면 참조)
다. 초 등 1,2부 : 창세기 1장 1절 - 19절
라. 초 등 3,4부 : 창세기 1장 1절 - 31절
마. 초 등 5,6부 : 창세기 1장 - 2장 17절
바. 중 등 1,2,3부 : 창세기 1장 - 3장
사. 고 등 부 : 창세기 1장 - 3장

아.대학, 청년부 : 창세기 1장 - 8장
자. 장년1,2,3,4부 : 빌립보서 전장
차. 소 망 부 : 롬 12장 전장
카. 사랑,예바다 : 고전 13장 전장
◆ 일반성도는 각 교회학교 연령별에 의거
암송

- (2)그림그리기 대회(6월 6일 - 주일)
· 참가대상 : 유치부 - 고등부까지
· 그림그릴 내용 : 당일 발표

7.준비사항

- (1)심사위원은 성
경암송대회 경우 각
교회학교 별로 구성
할 것, 그림 그리기

▶ 지난번에 교회학교 학
생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그림그리기대회에서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고있는
어린이들.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1. 김창인 원로목사님

- 3월28일 전주 성남교회 대전도회 집
회 인도
- 3월29일~3월31일 '95남북 통일 회
년 대성회 대구 집회 인도(대구 서일
교회)

2. 신성중 당회장 목사님

- 목회자 세미나 특강(매주 월)
- 3월29일 '93대전엑스포 청소년 대성
회 설교(천안성결교회)

대회는 미술에 조예가 깊은 성도로 구성
(2) 시상내용은 별도규정에 의해 운영한
다.
(3) 최우수자는 주일저녁 찬양예배시 암송
한다.
(4) 기타 미비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에서
수시로 의결하여 실시한다.

● 연합예배위원회 대회장 김창인 원로목사

을 부활절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
고난주간 중 금식하며
북한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오는 4월 11일
의 부활절 연합
예배를 앞두고,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 대
회장인 우리 교회 원로목사 김창인 목사는
교계 일간지와와의 대담과 극동방송과의 대
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
조했다.

부활절은 구주 성탄과 함께 기독교인들의
2대 명절이라고 전제한 김목사는 『죽음
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를 죽음에서 천국으
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맞아 여의도
광장에서 온 교회가 하나되어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이복에 있는 사람까지도 함께 예
배를 드리고 싶어 몇 사람을 초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여의도 광장에서 모이는 행
사가 1년에 두번 있는데 한번은 불교축 모
임이고, 한번은 기독교축의 부활절 연합예

배인데 불교축 모임은 해마다 늘어나고 부
활절 연합예배는 해마다 줄어드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생활이 편해졌기
에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 그런 이유도 있겠
지요.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럴수가 없을 것입니
다. 또한 점점 줄어드는 것은 전도에도 지
장이 되고 그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도 알
려지지요』 『백두산 소나무 찍어 북한에 교회
를 다시 지을날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금년 부활절에는 전 교인이 같은 제목으로
같은 시간에 뜨거운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
다. 또한 고난주간에도 전교인이 함께 기도
하고 한끼 이상 금식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김목사
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이복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되
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형>

4월 4일, 새가족 환영회

교회는 올해들어 두번째로 새가족환영회를
갖기로 했다. 이번 새가족환영회는 2월, 3월
중에 등록된 새신자를 환영하는 모임으로 교
구위원회가 주관하며 4부 예배후 본당에서
갖는다. 새가족들은 인도자와 함께 또한 모
든 교구 일꾼들도 함께 참석하여 환영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동 및 신임

교회는 현재 동산관리부장 마성락 장로를 기
도원관리부장으로, 기도원 관리부장이던 박
치민 장로를 동산관리부장으로 변경, 이동
했고 오케스트라 부지회자로 남궁조 집사를
새로 임명했다.

4월 2일 학습·세례식 4월 4일 성찬식

교회는 4월 2일(금)에 학습·세례식을 갖기
로 하고 이를 위한 예비문답과 교육을 4월1
일 오후 7시 교육관 307호실에서 하기로 했
다.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및 개종 받
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한편 4월 4일(주일), I,II,
III,IV부 예배시 성찬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4월 5일-10일, 새벽 5시

교회는 고난주간을 맞으며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
하고 그 발자취를 따르기를 위하여 고난주
간 특별새벽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고난주
간인 4월 5일(월)부터 4월 10일(토)까지
매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시작하는 특별새
벽기도회는 당회장 신성중 목사가 인도하
게 된다.

실업인선교회에서 구인·구직 알선

실업인선교회(회장 남선우 장로)에서는 3
월 15일 임원들이 충현기도원에서 모여 철
야기도회를 가지며 93년도의 새로운 사업
을 확정했다.

회원들의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직장
을 구하는 개인이나 또는 사람을 구하는
직장에 사람들을 알선하는 일을 하려고 한
다. 따라서 구인(求人)이나 구직(求職)을
희망하는 사람은 교회 구내전화 20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실업인선교회실로 연락하
면 된다

충현강단



겨자씨와 누룩 비유

(마 13:31-3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 13:30)

신 성 중

<목사·당회장>



본 문 마태복음 13장에는 일곱 가지 종류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비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의 성장에 관한 과정과 결과를 말씀하신 한쌍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우리나라 좁쌀보다도 약간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러나 이 겨자씨를 땅에 뿌리면 일년만에 3~4미터까지 성장을 하여 심지어 새들이 거기에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라납니다. 이것은 교회성장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반대로 이 누룩비유는 교회성장의 내적인, 질적인 면을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스트라고 부르는 누룩은 물에 타서 가루에 넣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상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그 가루가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도 성장하지만 내적으로도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성장한다고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1. 비유의 배경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보면 거기에 는 제자들의 낙담, 실망, 좌절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운동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아주 크고 멋지게 성장할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들이 전도를 할 때에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침을 받는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에 도무지 성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하여 낙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겨자씨나누를 알지? 그 씨앗이 얼마나 작으냐? 처음에는 미미하고 보잘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나중을 보아라! 그것이 3~4미터나 성장을 해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살지 않느냐? 또 너희들 누룩 알지? 누룩을 물에 풀어 가루 서말속에 집어넣었을 때 눈에 보이더냐? 안보인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가루가 부풀지 않느냐? 천국은 이렇게 외적으로는 겨자씨나누처럼 성장을 하고 내적으로는 누

룩처럼 점점 부풀어 영향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나누 비유는 천국의 질적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양적인 변화도 일어나야 되고 질적인 변화도 일어나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충현교회는 이 두가지 변화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누룩이 온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듯이 그야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2. 비유가 주는 교훈

(1)겨자씨 비유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뜻하는지 예수님을 뜻하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사람이 겨자씨를 밭에다 뿌렸습니다. 밭은 두 말할 것 없이 세상입니다. 겨자씨는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갖다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라고 했습니다. 원래 교회의 시작은 매우 작고 미미해서 보잘것 없어요. 충현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몇 명이 시작했습니까? 18명 인가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성장을 했습니까?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위로입니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자꾸 크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새는 일 반적으로 마귀를 뜻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교인들, 성도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권 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돈 이 없는 사람도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있 고 장애자들도 있고 낙심한 자들도 있고 별 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런 여러 종류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곳, 와서 쉬기

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 면 본문의 겨자씨나누 비유에서 주는 교훈은 첫째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너무 작고 미미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만 있으면, 병만 들지 않으면 자라납니다. 둘째로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안보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크게 자라나 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충성을 다하면 새들이 깃들 곳 이 있는 겨자나누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사업도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성장하고 충현교회도 성장할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2)누룩 비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 자가 가루 서말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성경에 보면 누룩을 나쁜 뜻과 좋은 뜻 으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 나쁜 뜻으로 말한 것을 찾아보면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라고 했습니다. 경계하시면서 주의하라는 말은 나쁜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 주의, 형식주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헤롯은 완 전히 세속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 기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입니다. 우리는 이런 누룩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누룩은 나쁜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본문에서는 좋은 의미로 얘기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가 가루 서말속에 누룩을 넣었다고 했는데 여자도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 시록에 보면 유혹이나 죄 등을 의미하는 나쁜 뜻으로 사용할 때가 있으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여자로 비유합니다. 이 누룩을 집어 넣습니다. 여기서 누룩 은 좋은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 이 누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루 서말속에다가 누룩 을,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 넣고 또 복음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가루 서말은 무엇 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 이 있는데 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 인류 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의 셋이라고 하 는 숫자는 노아의 세 아들인 함과 셈과 야벳 그러니까 전 인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개라고 하는 사람은 삼 중적 인간성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과 혼과 육신 이 세 가 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전 인류를 뜻하든지 아니 면 우리 개인적인 인간성, 삼중적인 인간성 을 뜻하든지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 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은 너희들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 냥 있는것이 아니라 마치 누룩이 가루 서말 을 부풀게 하듯이 들어가는 곳마다 개인이면 개인,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사회면 사회를 점점 부풀게 한다 그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지금 여러 분들의 심령속에 뿌려진 누룩은 과연 어떠한 까? 부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습니 까? 그 누룩이 좋은 누룩입니까? 나쁜 누룩 입니까? 세속주의나 향락주의, 외식주의 이 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부풀게 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세상사람처럼 만든 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 나 하나님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속에서 점점 점점 부풀어 가서 예수를 닮 아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 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날마다 신앙이 부풀어 오르길 바랍니다. 복음이 점점 부 풀어 오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의로움이 점점 부풀 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룩에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를 가져옵니다(행 26: 20). 둘째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듭니다(고후 5:17). 누룩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있 는 곳, 복음이 있는 곳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살전 1:9,10). 생활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 들였다고 하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야 됩니다. 방향이 달라야 되고 목 적의 달라야 되고 삶의 의미가 달라야 됩니 다. 우리의 신앙이 겨자씨나누처럼, 가루 서 말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처럼 싱싱하게 살 아 있어서 삶에 지친 영혼들이 와서 깃들이 며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부자

세상에서 누가 참 부자일까? 대 부분의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좀더 많은 돈 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는 아직 가난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참 부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춘 사 람이라고 본다. 첫째는 자신의 가진 것에 대 해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 하고 있는지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남에게 줄 수 있는냐에 따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결정된다.

예수님의 경우 그는 살 집도 없었고 옷도 단발밖에 없었으며 주머니에는 단 한 톨의 돈 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많은 것을 인류를 위해서 주셨으며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소위 재벌들 가운데 남에게 줄 줄 모르는 졸부들이 너무 많고, 부 자 같으나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은 참 부자인가?

글/신성중 목사

주 일 오후 4시 본당, 서쪽 창문에서는 오후의 지리한 햇살이 길게 들어와 빈 자리들을 메꾸고 있고, 군데 군데 앉은 성도들의 조용한 기도와 말씀 목상이 웬지 다시 한번 옷매무시와 마음을 가다듬게 한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로 무사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반복되는 떨리는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뒤 차분한 마음으로 오르간에 앉아 스위치를 켜다.

조그만 녹색불이 들어오고 페달 부분의 노란등이 켜지면 다시 한 번 기도드린다. 담대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손가락이 정확히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인도하시는 차장로님의 성대를 보호해달라고, 영으로 찬양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온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달라고, 이렇게 매주일 똑 같은 기도를 드린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고정키를 확인한 뒤, 플루트 키들이 아름답게 조합된 6번 키로 음색을 맞춘 뒤, 조용한 찬송으로 손가락도 풀고 마음을 정돈한다.

4시 40분 어김없이 차장로님이 본당

나의 소중한 감사

오 은 영

(창년2부회원)

앞문으로 들어오시고 준비찬송에서 부를 두 세곡의 찬송가를 미리 찾아 놓으면, 장로님의 인도에 따라 온회중의 찬송이



시작된다. 매주 반복되는 이 짧은 시간들은 나에게 있어 일주일 동안 가장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소중한 시간이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연히 성가대 오르가니스트를 동경하고 나도 모르게 그 오르간에서 나오는 여러 음색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한가한 주일 오후, 텅빈 본당에서 호기심 반 떨림 반으로 혼자 오르간을 쳐 본 일들을 계기로 감히 주일 저녁 예배 전 준

비찬송 반주를 시작한 것이 벌써 3년 째에 접어든다.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내 전공은 비서학이다), 또 특별한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닌데, 피아노를 그만둔 중학교 2학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건반을 놓지 않도록 그 때 그 때 적절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 드린다.

국민학교 6학년 때, 친구와 이야기 하다가 우연찮게 "이담에 커서 오르간 반주자가 될꺼야"라고 했던 말을 피식 떠올리며, 철모르는 아이가 친구 앞에서 좀 잘 나 보이려고 무심코 내어뻐는 말까지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신기하기까지 하다. 정반주자가 아니라 '준비찬송 반주자'(감히 반주자라는 명칭을 붙여도 될까?)이긴 하지만, 늘 나에게는 과분하기만 하다. 언제까지 이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배예설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과 또 다른 내일을 예비하시리라 믿으며,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충성

박 종 관

(초등6부 교사)

분노와 어리석음이
강그리 두루 말리우던 날
뇌리를 장악하는 한 편지에
빈틈 없는 KO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새 에덴 동산이었다

아버지여
소자의 사랑과
생명의 모든 것이
징계의 포근한 그 손길에
탐스럽고 흥조된 한 어린이의
창조된 새 얼굴이 되어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보내신 명령이 길이 살아
영원한 섬김과 충성이 되리이다
이대로 앞드려
그날까지 말하는 빛이 되리이다
천성을 향하는 그날에
고개를 들게하시리라
양 손 벌린 이 죄인을
가져들려 주시고

십자가
십자가에서
글썩고 혈맥을 다시 펴시고

당신의
끊임없는 맥박을 따라
술한 고통의 사연을
이 몸 깊숙한 곳에 새기시니

영생의
찬란한 사랑의 빛이
온 우주에서 발현(發現) 하나이다

진
생과
삶이
해바라기의 향함같이
죽순의 생명처럼 자라오리라

여호와여
불과 기름이 갈증을 잃는
영원한 안식처에서
나의 정성 모든 것에 드러나이다

구원과 소망과
사랑의 동산에서는
완으로
안으로만
파고드는 한 마리의 별난 사슴과
탄생이 쉬지 않는 영원한 품 속에서
오늘도
매일도
내려오는 새 뿌리는
사랑의 대대로 흐르는대다

오라
풍파여
편주에 솟은 깃발은
충성
충성
그 이름 충성이라고



사랑방이 필요합니다

이 병 각

(목사, 대학부 지도)



대 학부를 제도하는 나에게'는 짐심창개 '낯선' 전화가 걸려 온다. 지난 '월요일'에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반갑지 않은(?)' 전화를 받았다.

'목사님 M모 예술 신학교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 아들이 그 학교를 가겠

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담은 시작되었다. 그 어머니는 전라도 서골에서 무작정 충현교회로 전화를 한 것이다. 사연인즉은 아들의 진학문제와 신앙적인 지도를 부탁한다는 것이다. 청원도 넉넉하지 못한테 잘 알지도 못하는 학교엘 간다고 하니 잘 설득해 달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우리 대학부의 학부형인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교인이 아니었다. 그 문제의 아들은 서울에 살았지만 교회도 다니지 않는 아들이었다. 참 막연했다. 아들을 만나서 알았지만 그 어머니도 교회를 잘 나가는 분은 아니었다. 아마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다급해서 목사인 나를 무작정 찾은 것이라 생각된다. 아들은 '학교 등록금을 안 주면 인생 끝내겠다'고 협박 비슷한 것을 한 것이었다.

그 어머니가 알려 주시는 아들의 연락처에 전화를 해서 본연은 만났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목사님 내는 어머니의 관에서 그 아들을 설득시키느라 애를 썼다. 그러나 막상 아들의 이야기 또한 간절했다. 삼수까지 했지만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제 군대에 가야하는데 아무 학교에나 좋으니 한 켄 소속감이라도 느꼈으면 한에 없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삶에 대한 리듬과 자신감을 찾겠다고 했다. 아들의 말도 옳다고 생각되었다.

그 아들은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살았다. 그러나 육신만 먼 것이 아니라 마음은 더 멀었다. 다 타당한 주장을 했

다. 그러나 그 간격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두 사람의 의견은 다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들에게 이야기 해 줄 사람이 없다는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였다. 한분 뿐인 어머니였지만 정말 아들의 현실을 이해 못해준다는 아들의 항변이었다. 그 모자에게는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랑방이 없었다. 오랜 시간과 먼 거리 이것이 모자간의 사랑의 대화를 막은 것이었다.

우리에게 사랑방이 필요하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랑방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 건물은 크고 아름답다. 그런데 막상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공간은 어떤지... "우리 교회에 뜰에 젊은이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래 전부터 예원 기도를 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기도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 사랑방을 주소서.' 우리 교회 안에 언제라도 열려 있는 사랑방,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사랑방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학이 밀집한 곳에 작은 사랑방이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방. 그러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릴 것을 믿는다. 대학은 넓고 사람도 많다. 그러나 사랑방은 없다.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방이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토막소식

- ◆ **영아부**(부장 정광호 장로, 지도 정연희 전도사)는 새로 단장한 선교관 1층으로 옮겨서 더욱 활기가 넘치고 있다.
- ◆ **유치부**(부장 박인세 장로, 지도 김정자 전도사)는 지도교역자의 교사심방이 계속 중이다.
- ◆ **초등1부**(부장 김광남 장로, 지도 김필수 전도사)는 지난 3월부터 오후 예배를 11시 30분 교육관 305호실에서 드리고 있다.
- ◆ **초등2부**(부장 김중구 장로, 지도 정갑신 전도사)는 4월 25일 자체 성경암송대회를 앞두고 매일 한구절씩 암송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 ◆ **초등3부**(부장 김여순 장로, 지도 이홍성 목사)는 3월 한달을 100% 출석의 달로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매주 100% 출석반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 ◆ **초등5부**(부장 윤성철 장로, 지도 성봉환 목사)는 4월 4일 성경교사를, 4월 11일에는 성경이야기 대회를 한다.
- ◆ **초등6부**(부장 이창호 장로, 지도 한용관 목사)는 지난 3월 26일 뉴질랜드로 출국한

- 김형선, 한영자 평신도선교사에게 성경, 찬송가 합본 10권을 선물로 전달하였다.
- ◆ **중등1부**(부장 최무길 장로, 지도 김희수 목사)는 장기결석자 및 새로운 친구 전도하기 행사를 계획하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대상자 1명 이상을 놓고 기도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 ◆ **중등2부**(부장 박영식 장로, 지도 이종대 목사)는 4월 4일 저녁 충현기독교원에서 학생 철야기도회를, 4월 5일은 임원수련회를 가질 계획이다.
- ◆ **중등3부**(부장 엄필성 장로, 지도 정연해 목사)는 4월 4일 12시 30분에 교육관 504호에서 '당신의 자녀는 가정과 학교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주제로 학부모 초청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 ◆ **고등부**(부장 최성현 장로, 지도 장봉생 목사)는 4월 1일-30일까지 제1차 미래지도자 운동을 실시한다. '예수 사랑, 미래 지도자, 충현 고등부'를 올해 표어로 하고 미래지도자로서 훈련을 쌓아가고 있는 고등부는 금번 4월을 제1차 미래지도자 운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제를 "전도폭발"로 정했다. 금번 운동의 표어는 '미래 지도자 나도 한 사람'이다. 고등부 배가운동 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시되는 이 운동은 4월 한달간 매주마다

- 오전 8:30분 부터 갈릴리홀에서 1부 예배, 2부 성경공부, 3부 미래지도자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등부는 이를 위해 4월 한달간 교사와 학생이 각각 연쇄금식기도에 들어가며, 5일(월) 오전 10시에는 특별기도회를 갖는다.
- ◆ **소망부**(부장 마성락 장로, 지도 이인우 목사)는 지난 주일 반별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열면 가운데 진행하여 1등에 여1과(사랑반), 2등에 여2과(소망반), 3등에 남2과(민음반)가 차지했다.



- ◆ **대학부**(부장 박용삼 장로, 지도 이병각 목사)는 지난 주일 '예수사랑 봄잔치'를 열고 새로운 형제, 자매들을 초청하여 27일(토) 신입생환영회를 가졌고 오늘 집회후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 새로운 형제자매들을 새로운 조에 편성하게

- 된다.
- ◆ **장년1부**(부장 정운석 장로, 지도 권성수 목사)는 오늘 주일 집회후 각 반별로 반별친교회를 갖고 서로를 아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 **새가정부**(부장 김재균 장로, 지도 최인근 목사)는 5월 4,5일의 새가정부 하기 수련회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중에 있다.
- ◆ **탁아부**(부장 강모용 장로, 지도 최지혜 전도사)는 오늘 각 교구 모임후에 교사 교육 및 교사 기도회로 모여 기도하며 교육하는 시간을 갖는다.
- ◆ **미주선교찬양대**는 지난 3월 8,9일동안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수련회에는 김창인 목사와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강사로 수고했다.



● 선교지 탐방기 - 홍콩편(1) ●

빨래막대기

영화 속에서 환상의 도시로 이미지화 되었던 홍콩. 막상 가서보니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인상을 받았다. 좁은 공간 속에서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 계획된 주택들은 성냥갑 같이 단정히 하늘을 치솟고 있었다. 비행장에서 숙소까지 가는 동안 계속 볼 수 있었던 빨래 막대기는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인지, 빨래 말릴 공간이 없어서인지 집집마다 창 밖으로 막대기를 꽂아서 빨래를 말렸다. 그 높은 빌딩이 온통 빨래도 뒤덮여 있었다. 백만불짜리 야경을 자랑하는 도시 홍콩이 멋있는 야경보다는 차라리 빨래 막대기로 더 유명한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앞에 즐비해 있었다. 도시 미관상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아마도 이들은 도시 미관보다는 실용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인듯 싶었다. 그래서 그런지 도시 도색할 시기가 지난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있었고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해도 신경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보였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포르노 잡지를 공개적으로 파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아마 자꾸 보다 보니 이런 것들이 만성이 되어진 듯 싶었다.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다. 자꾸 같은 것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게 되며 나쁜 것도 나쁘지 않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었다.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고 첫 사랑을 간직한 그 감격이 계속되는 신앙 생활로 인해 무디어질 때가 있고 죄된 일도 자꾸 보다 보면 감각이 무디어져 만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것이 거듭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실리추구의 인물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다.

"주여,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감각이 무디어지지 않게 하소서"
〈선교위원회 제공〉



다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 사역 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 김창인 목사님 : 3월 28일(주일) 전주 성남교회 대 전도회 집회 인도 3월29일(월)~3월31일(수) 95남북통일 회년 대성회 대 집회 인도(대구 서일교회)
· 신성종 목사님 : 목회자 세미나 특강(매주 월) 3월29일(월) '93대전 엑스포 청소년 대성회 설교(찬안 성결교회)
2. 주의 진리 가운데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3. 4월 1일, 2일 학습·세례식에 참여하는 자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4. '93청지기 수련회에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이 힘써 참여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봄이 왔다

봄이 오면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 화단 가꾸기 자원봉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봉사는 바울전도회 2지회가 연중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였는데 특히 조경전문가인 김상남 성도가 조경관리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므로 참여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있다. 매주 토요일 마다 실시하는 교회 화단 가꾸기 자원봉사에 뜻있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